



황의조

## ‘賞 남자’ 황의조

### 대한축구협 ‘올해의 선수상’ ... 여자 선수상엔 현대제철 장슬기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잠바 오사카)가 2018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황의조가 이날 열리는 2018 KFA 시상식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대표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아시안게임 7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황의조의 활약상은 아시안게임에 그치지 않았다. 총 6차례 A매치에서 3골을 기록하며 물 오른 골

감각을 뽐냈다. 소속 팀에서도 34경기에서 21골을 기록하는 등 올 한해 47경기에서 33골을 터뜨리는 우수한 득점력을 선보였다.

올해의 남자 선수상은 대한축구협회 46개 출입인론사 축구팀장과 올해의 선수 추천위원회 투표결과를 5대5로 합산해 선정했다.

협회는 각 투표자에게 1,2,3위 세 명의 선수를 추천하게 한 뒤 순위별로 3점, 2점, 1점을 부여했다. 2011년부터 이 상은 기성용(뉴캐슬)과 손흥민(토트넘-이상 3회 수상)이 독식했다.

2011년 이후 기성용, 손흥민 이외의 선수가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은 건 2015년 김영권(광저우)이 유일했다.

황의조는 2018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승리에 앞장선 손흥민, 조현우(대구), 김영권 등을 제치고 수상의 감격을 안게 됐다.

올해의 여자 선수상엔 장슬기(인천 현대제철)가 선정됐다.

장슬기는 올해 여자프로축구 WK리그에서 27경기에 출전해 11골 7도움을 기록해 현대제철의 6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손흥민

## ‘물’ 만난 손흥민

### 챔스리그 16강 도르트문트와 대결... 통산 10경기 8골 맹활약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상대가 도르트문트(독일)로 정해진 뒤 “좋은 대진 추천 결과가 나왔다”라며 남다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토트넘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웬지 모르게 도르트문트와 만날 것 같다”라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르트문트가 어려운 상대인 건 맞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며 “지난 시즌에도 도르트문트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자신감을 갖고 싸운다면 8강 진출을 넘어 4강, 결승, 그 이상의 성적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펄 때부터 유독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시즌까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통산 10경기에서 8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같은 조에서 만난 도르트문트와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다.

도르트문트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유니폼을 착용해 ‘꿀벌군단’이라는 별칭을 갖는데, 국내 팬들은 손흥민에게 ‘양봉업자’, ‘꿀벌 킬러’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다.

손흥민과 도르트문트의 인연(?)은 유럽 현지에 서도 유명하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은 유독 도르트문트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도르트문트에 강한 이유를 묻는 말에 “특별한 건 없다”라며 “그저 팀 동료들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동료들이 없었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골을 넣고 싶다”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토트넘과 도르트문트는 17일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에서 상대 팀으로 만났다.

두 팀은 내년 2월 14일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3월 6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2차전을 펼친다. /연합뉴스

## 이승우 주전 꺾차나

### 伊 2부리그 3경기 연속 선발

엘라스 베로나의 공격수 이승우(20)가 조금씩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승우는 1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스타디오 벤틀레고에서 열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B(2부리그) 페스카라와 홈 경기에 풀타임 출전했다.

4-1-4-1 전술에서 2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승우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팀의 3-1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올 시즌 초반까지 벤치 신세였던 이승우는 최근 출전 시간을 늘리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팔레르모와 경기에서 85분간 뛰었고, 10일 베네벤토전에선 87분을 소화했다.

베로나는 이승우가 선발 출전한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뒀다.

다만 이승우는 올 시즌 공격포인트를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으로 보는 K리그

### 축구협, 명장면 사진집 발간

2018시즌 K리그의 명장면들을 사진으로 돌아볼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8 K리그 사진집 - 부파인더로 본 2018 K리그’를 발간한다.

K리그 사진집은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발간되고 있으며, 한 시즌을 마무리하며 팬들의 기억에 남을 순간을 책으로 담아내고 있다.

‘2018 K리그 사진집’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전지훈련부터 승강포까지 계속됐던 그라운드 안과 밖의 희로애락을 다룬 예정이다.

또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조현우의 대구FC 사랑, 아시안게임에 통해 떠오른 신에 김문환-황인범-조유민-나상호의 스토리, 부상에서 완벽히 부활한 이용의 활약상, 올 시즌을 끝으로 소속팀 감독직을 마무리한 최강희-서정원 감독의 눈물 등 생생한 그라운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집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https://www.tumblbug.com/)’을 통해 선주문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막상막하 스위스 파니 스미스(가운데)가 18일 오전(한국 시간) 스위스 아로사에서 열린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스키크로스에서 경쟁자들과 함께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명보 자선 축구’ 올해가 마지막

### 16년간 23억여원 기부 22일 경기... 홍명보 “이제 후배들 돕겠다”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모토로 지난 2003년부터 16년째 이어왔던 홍명보 자선 축구 경기가 올해를 끝으로 중단된다.

홍명보 자선재단은 2003년 이 대회를 개최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외 계층 돕기를 위한 자선 축구 경기를 열었다.

지난해까지 자선 축구 경기 수익금으로 22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소아암 환우와 각종 스포츠 복지 단체, 축구 유망주, 저소득층 돕기와 청년 실

업 지원 등에 써왔다.

국대 최대 규모 자선 축구 경기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 경기를 개최해 온 홍명보 이사장(대한축구협회 전무)은 후배들이 대신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올해를 끝으로 접기로 결심했다.

홍명보 이사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직후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 진출했다가 천안 초등학교 화재 참사를 본 뒤 사회 공헌에 관심을 가져 자선 경기를 시작했다”면서 “이근호 등 후배 선수들이 자선 경기

를 열고 있고, 자선 분위기가 확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후배들이 자선 경기를 한다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며 “장학금 수여 사업과 수비수 캠프, 책 나눠주기 등 다양한 공헌 활동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 전무라는 공적인 자리를 맡고 있어 자선 경기를 위한 스폰서 영입 등에 대한 시선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이사장은 “급한 수술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가 자선 경기 수익금으로 수술을 받고 이듬해 경기 때 시축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거창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16화째를 맞는 자선 축구경기는 22

일 오후 2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레전드와 K리그 올스타 대결로 펼쳐진다.

2002년 레전드팀에는 월드컵 멤버였던 김남일과 송종국, 유상철, 이영표, 최진철, 이천수, 최용수, 김태영, 현영민, 최태욱, 김병지 등 추억의 스타들이 망라됐다. 또 여자축구 WK리그의 열정 선수 심서연(인천 현대제철)과 개그맨 서경석이 특별 게스트로 출전한다.

K리그 올스타팀에는 김신욱(전북)과 고요한, 조영욱, 윤석영(이상 FC서울), 김민우, 윤빛가람(이상 상주) 등 국내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과 일본과 골키퍼 정성룡(가와사키), 가수 레오와 빅스도 초청 선수를 참가한다. /연합뉴스